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9월 24일(금) 총 2매				
담당부서	건강증진과	담당자	•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☎440-2981 • 담당자 윤지숙 ☎440-2983			
사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**인천시, 치매예방관리·인식개선 유공자에 표창**  
 - ‘제 14회 치매극복의 날’ 맞아 표창 수여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치매예방과 조기검진,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한 2개의 유공단체 및 6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

표창 대상은 치매예방관리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단체 및 개인으로 ▲인천미림극장 ▲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▲박성용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교수 ▲강재명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▲이은자 연수구립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장 ▲최혜선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 ▲임일섭 남동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▲이길복 초로기 치매당사자 등이다.

표창을 받은 유공단체 및 유공자는 인천시·광역치매센터 및 군·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예방·조기검진·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했다.

특히, 초로기 치매 당사자인 이길복씨는 치료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

활동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치매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유공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” 며 “치매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한편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(WHO)가 지정한 ‘세계 알츠하이머의 날(world Alzheimer’s day)로 우리나라는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이날을 ‘치매극복의 날’로 지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.